

# 농촌 문제로서의 가축전염병

## - 일제시대 신문에 나타난 구제역 -

천 명 선\*

1930년대 이후 현대사의 혼란과 축산업의 현대화 과정에서 구제역에 대한 농촌 사회의 역사적 경험은 잊혀졌으며 이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두 번의 구제역 유행에서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한국 내 구제역은 우역 및 탄저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가축전염병 중 하나였다. 당시는 일제 식민지 하에서 일본식 근대 방역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방역 제도와 인력이 재정비 된 시기이다. 가축 전염병은 축산생산력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위해 요소이기 때문에 국가적이고 조직적인 관리가 진행되었다. 구제역이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사율이 높지 않은 질병임이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가축전염병예방 법규에 법정전염병으로 명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살처분은 수행되지 않았다.

일본인 수의사들을 중심으로 수행된 근대 방역책은 당시 축우 개량 사업, 농촌 진흥 운동 등과 맞물려 농촌사회에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축 위생통계와 더불어 신문자료는 촌락 내 전통수의 인력의 재교육, 일본인 수의사와 농촌사회의 마찰, 농촌사회 내 가축방역을 위한 자경단 활동, 축력 농법과 가축전염병의 관계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구제역을 비롯한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위생정책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신문자료에 따르면 1919년과 1933년의 구제역은 당시 가장 규모가 큰 가축전염병이었으나 발생과 대처방안은 서로 달랐다. 조사된 163개의 신문기사 중 117개가 1933년 구제역 발생에 집중되어 있었다. 1919년에는 구제역 발생 규모와 발생지역 면에 있어 가장 심각한 유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치사율이 높은 우역과 탄저가 주요 관심사였으며, 아직 근대 방역조직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심각성이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1933년에는 일본 이출우 검역 중에 구제역이 진단된 것을 계기로 심도 깊은 연구와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1930년 대 우역과 탄저 발생 감소와 일본으로의 이출우 증가추세에서 그 배경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일제시대 구제역 발

---

\* 서울대 수의대

생 자료를 통해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처방안이 원인체의 발견과 수의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영향 하에 있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일제시대, 구제역, 가축전염병, 농촌사회

##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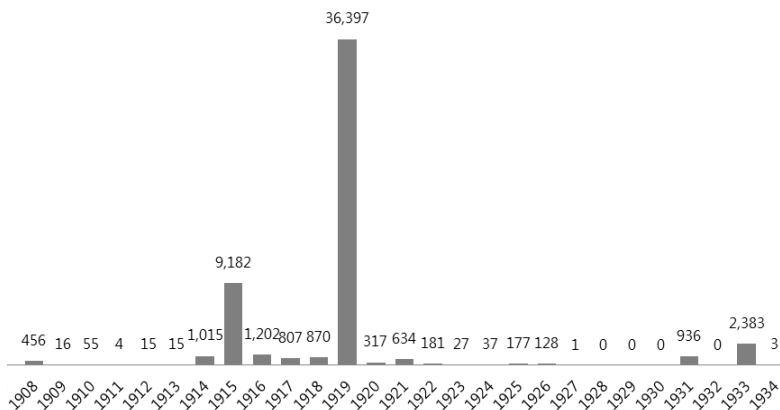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은 축산농민이나 농촌사회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식품위생, 축산정책, 동물복지 등 사회 전반의 이슈가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자마자 겪었던 몇 번의 짧은 전염병의 사회적 경험은 이와 같이 광범위한 가축전염병을 통제하는데 있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다. 이는 실제 가축전염병으로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조치가 내려지는 농촌사회를 중심으로 인간과 동물, 환경의 통합적인 측면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시각과 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구제역은 최근에 새롭게 발견된 질병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제역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다.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1900년도 초반 구제역은 우역(rinderpest), 탄저(anthrax)에 뒤이은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발생 빈도와 감염 동물 수로는 다른 질병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은 근대적 가축위생통계가 시작된 1907년 이래 공식적으로는 1934년 이후로 종식된 것으로 보고 되었다. 당시는 전통적인 축산·수의 지식과 기술에 바탕을 둔 가축전염병 방역 및 치료의 과정이 일대 변혁을 겪게 되는 시기였다. 그렇다면 구제역은 당시 농촌 경제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으며, 농촌 환경의 변화가 구제역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또한,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한 전문인력은 어떻게 조달되었을까? 당시 위생을 식민지 통제의 수단으로 삼았던 조선총독부의 가축 전염병 정책은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되었을까? 일본으로 이출된 생우와 축산물의 증가, 축산 생산성 증가와 가축전염병 방역 정책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당시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폭넓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고는 1907년부터 1945년까지 구제역 관련 관보와 신문 기사 그리고 축산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위의 문제들을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해보고자 한다.

## Ⅱ.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검색 서비스 및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검색 서비스, 네이버신문검색, 조선일보 고신문검색,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료 검색 등을 이용해 ‘유행성아구창(流行性 鵝口瘡)’과 ‘구제역(口蹄疫)’을 포함하는 기사를 찾았으며, 일부는 검색어에 ‘우역(牛疫)’을 추가하였다(표1). 구제역은 유행성 아구창 또는 구제역으로 공식 표기하고 있으나 신문에서는 여전히 ‘우역’, ‘아구창 우역’ 등을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1> 조사 관보/신문 및 통계 자료

주제어	구분	자료
流行性鵝口瘡 口蹄疫	대한제국 관보(1895-1910)	17건
	조선총독부 관보(1910-1940)	총 46건
	고신문자료(1889-1940)	매일신보 94건, 기타2건, 동아일보 53건, 조선일보 16건
	통계 자료	조선농업발달사-발달편(1944) 조선수의축산학회 통계표(1935) 조선가축위생통계(1934, 1942)
	기타자료	한국수의학 및 축산학 역사 서적



<그림 1> 축우에서의 구제역 발생 연표(1907-1934)<sup>1)</sup>(단위: 두)

&lt;표 2&gt; 조사 자료 중 고신문의 구제역 관련 기사 빈도2)

년도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계
1914년	2			2
1915년	4			4
1916년				
1917년				
1918년				
1919년	2			2
1920년	1			1
1921년			1	1
1922년				
1923년		1	1	2
1924년			1	1
1925년				
1926년				
1927년				
1928년				
1929년	2		1	3
1930년				
1931년	7		3	10
1932년	1			1
1933년	71	41	5	117
1934년	2	4	3	9
1935년				1
1936년		2		2
1937년	1	1	1	3
1938년		3		3
1939년				
1940년		1		1
1941년				
1942년	1			1
계	94	53	16	163

- 1) 1908-1909년도 통계는 대한제국 관보(1895-1910)를 1908-1934년까지의 통계는 韓國農會(1944). 朝鮮農業發達史 發達篇. 第19表를 참조했다; 구제역은 1908-1911년까지는 유행성 아구창(流行性鵝口瘡)으로 1912년부터는 구제역(口蹄疫)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1934년 이후로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 박상표(2011)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 구제역 최초 발생은 1911년을 앞선다(『한국은 일본의 전염병 식민지, 최초 구제역이 1911년? 박상표 칼럼 역사와 과학의 눈으로 보는 구제역 3』, 『프레시안』 2011년 3월 1일).

공식 통계자료에 따르면 1934년 구제역은 한반도에서 종식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1). 가장 큰 유행은 1915년, 1919년, 1933년에 발생했으며 조사는 축우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구제역 발생연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발행되었던 매일신보자료(표 2)를 보면 발생기사는 오히려 1933년에 집중되어 있으며 1934년 이후에도 지역 단신에서는 구제역 발생 기사가 게재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1915년 및 1919년과 1933년 구제역 발생에 있어 농촌 상황을 비롯한 사회 상황, 축산정책, 가축전염병 정책, 전문인력 현황 등을 바탕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 Ⅲ. 1914-1919년 구제역 대유행

#### 1. 전통 수의학적 개념의 우역(牛疫)

이른바 소에서 ‘서로 전염하는 병’<sup>3)</sup>인 우역(牛疫)은 조선왕조실록의 공식적인 기록만 참조해도 16세기부터 한반도 전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빈도로 발생했다. 우역은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피폐해진 농촌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당시 의학서와 농학서를 검토하여 가축의 역병에 효험이 있는 처방을 모아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sup>4)</sup>을 편찬한다.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사용한 점, 전문에 한글로 설명을 달아놓은 점으로 미루어볼 때 농가에서 직접 참고할 수 있도록 배려했음을 알 수 있다.<sup>5)</sup> 대부분은 치료약제를 설명하고 있으나 ‘양의 외양간을 높이 만들고 날마다 깨끗이 쓸며, 사시에 내어 놓아 먹이다가 미시에는 도로 들이고 이슬을 맞게 하지 말라’ 등과 같이 축사 위생과 예방법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우역이 발생했을 때 정

2)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경우 1920년부터 발간되었기 때문에 1915년과 1919년 기사수 비교는 의미가 없다.

3)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에서 ‘염역병’에 대한 한글 해석이다.

4) 1541년 초판이 발간된 이래 1578년, 1636년, 1644년에 중간되었다. 1636년 중간본 최명길의 ‘牛疫方後跋’에는 조선 지난 백여년 간 세 차례 우역이 크게 유행하였으며, 우역으로 인해 농사일에 지장을 줄 것을 걱정하여 인조(仁祖)가 이 책을 다시 발행함을 언급하고 있다. 신동원(2004), 『한국마의학사』, 과천: 한국마사회, pp.89-106.

5) 신동원(2004), 같은 책, pp.79-88; 천명선(2009), 『수의역사:전염병의원인체 발견과 근대 역학의 발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00년사』,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pp.54-59.

부에서는 ‘소를 잡지 못하도록(牛禁)’ 조치를 내렸다. 이는 축력농법이 보편적이었던 당시의 농업 노동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식량이 부족한 농민들에게는 소를 도축하여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였다.

지평 윤우정(尹遇丁)이 아뢰기를, “올해 우역(牛疫)이 매우 참혹하게 번져 앞으로 종자가 끊길 염려마져 있습니다. 일찍이 정축년에 우역이 있었을 때 소를 죽인 자는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은 죄를 적용하기로 영갑(令甲)에 기재하였으니, 지금도 이 법에 의거하여 통렬히 금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사신은 논한다. 윤우정은 사람은 귀하고 가축은 천한 의리를 모르는 자라고 할 수 있겠다(顯宗 7卷, 4年(1663) 9月 15日己卯).

경상 감사 민시중(閔蓍重)이 치제하였다. “좌도(左道)의 각 고을은 우역(牛疫)이 크게 치열한데 저절로 죽은 것의 고기는 혹 사람에게 해로울까 염려하여 파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굶주린 백성들이 밤을 틈타 파내어 먹고는 죽은 자가 매우 많습니다. (顯宗 19卷, 12年(1671) 7月 5日甲寅).”

대한제국 성립 시기까지 가축전염병에 대한 처치는 전통 의학의 ‘역(疫)’ 개념에 따라 이루어 졌기 때문에 가축의 이동 제한, 격리, 살처분 등의 조치는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다만, 우역에 걸려 죽은 고기를 먹는 것이 해롭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파문는 것은 보건과 전염병 전파를 차단하려는 시도였던 것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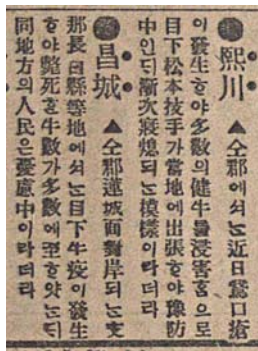
## 2. 20세기 초 구제역 유행과 방역

개항 후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사업무와 방역을 담당한 것은 일본인 수의사들로, 이들은 대한제국 통감부가 일한신협약(日韓新協約, 1907)을 체결하여 일본인들을 조선 관리로 임용하기 시작한 시기로부터 전면에 등장했다. 그러나 이미 실제적인 조사는 그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국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근대적 개념의 조사는 1905년 수의학 박사 도끼시게(時重初熊)의 ‘한국우역과 수역에 관한 사항조사’에서 비롯된다. 이 조사보고서에서 구제역은 ‘유행성 아구창(流行性鵝口瘡)’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정확한 발생빈도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우역, 탄저와 더불어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취급되었다.<sup>6)</sup> 대한제국 농상공부 축산과장이었던 하라지마센지스케(原島善之助)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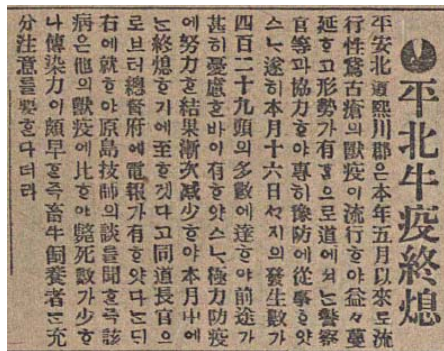
1907-8년에 한국중앙농회보에 연재한 ‘한국의 축산과 수역’<sup>7)</sup>에서 유행성아구창의 발생을 언급했다. 1908년 4월에는 평안북도에서 이 질병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같은 잡지에 게재되었다.<sup>8)</sup>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수역조사 보고는 대한제국 관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08년 대한제국 관보에 게재된 융희2년 한국수역조사표<sup>9)</sup>에는 1908년 발생한 우역, 탄저 및 유행성 아구창에 대한 통계가 기록되어 있다. 그 중 유행성 아구창은 평안북도에서 소 456마리에 발생했고 24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1909년에는 유행은 잦아들었지만 남부지방까지 퍼져 경상북도에서도 구제역 발생이 보고되었다(표3)

<표 3> 隆熙3年(1909) 中韓國獸疫調査表 流行性鵝口瘡(구제역)

구분	함경북도	평안북도	경상북도	계
	穩城	孟山	大邱	
발생	소 2	소 10	소 4	소 16
폐사	-	소 2	-	소 2
회복	소 2	-	소 4	소 6



<그림 2> 매일신보 1914년  
4월 28일 4면



<그림 3> 매일신보 1914년  
4월 29일 2면

- 6) 도끼시계는 수역조사소 소속으로 1905년 4월 도쿄를 출발하여 6월 30일까지 한반도 전역을 돌며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時重初雄(1905), 『韓國牛疫其他獸疫ニ關スル事項調査復命書』; 이시영(2008), 『한국수의학사』,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p.343.
- 7) 原島善之助(1908), 『韓國の畜産と獸疫』, 『韓國中央農會報』, 2(1), pp.7-12.
- 8) 『流行性鵝口瘡の發生』, 『韓國中央農會報』(1908), 2(5), p.19.
- 9) 隆熙二年中韓國獸疫調査表(農商工部), 『官報』 4641號, 隆熙4(1910)年 4月 1日.

연구자료 중 구제역(流行性鵝口瘡)을 보고한 첫 신문자료는 1914년 매일신보로 평안북도 희천(熙川)에서 아구창이 발생하여 다수의 건강한 소를 침해하여 마쓰모토(松本) 기수(技手)가 출장하여 예방 중이라는 내용이다(그림 2).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서 매일신보는 구제역의 전파상황과 예방 대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sup>10)</sup> 다음날 역시 매일신보에는 ‘평북 우역 종식’이라는 제목 하에 16일까지 발생수가 429두에 달하여 염려하였지만 경찰관들과 협력 방역이 성공하여이번 달내로 종식될 것이며, 다른 수역에 비하면 폐사수가 적으나 전염력이 강하여 축우사양자는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림 3). 1914년에는 이전까지 십 수 두에 지나지 않았던 구제역 발생규모가 1,015두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1915년까지 큰 유행으로 번졌다. 1915년 기사에서는 유행성아구창이 아니라 ‘구제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문정보원으로는 총독부 축산기사가 등장한다. 그는 구제역이 개, 양, 멧돼지, 고양이, 돼지 등에도 전염하고 우유를 식용할 때는 사람에게도 감염할 수 있으며 전염력은 급속하지만 사망률이 작고, 소, 말들에 전염될 경우 농경과 운송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 그리고 방역 방법으로는 통행의 차단을 우선으로 해야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전염의 발원지를 중국으로 추측하고 있다.<sup>11)</sup>

구제역은 알려진 것처럼 전파가 빠른 질병이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발생했는지를 알수는 없으나 이미 16세기 유럽에서 알려진 질병이었으며 1800년 대 유럽대륙과 영국에 대규모로 퍼지면서 국가적이 대책이 마련되었다. 17세기에도 이미 감염된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데 있어 규정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강제 규정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sup>12)</sup> 이런 사정은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1920년대 구제역 감염우살처분 정책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구제역 감염 가축에 대한 제한과 통제는 강제성이 크지 않았다.<sup>13)</sup> ‘감염성은 높지만 치사율은 낮은 질병’으로서의 구제역은 대중에게도 잘 알려졌다. 영국의 구제역 유행과살처분 정책에 대해서는 국내 신문에도 보고되었다. 다만, 이 병에 걸린 환자가 1400명에 이른다는 것은 일부 과장이거나 오정보인 것으로 보인다.

10) 1904년에 창간된 대한매일신보가 1910년 일제 조선총독부에 매각되어 기관지인每日申報로 발행되었으며 일제시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발간된 유일한 한글 신문이다; 양기호(2003), 『1940년대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재검토—[매일신보] 기사분석을 중심으로』, 『한림일본학』 8, pp.105-142.

11) ‘평북우의 구제역’, 『매일신보』 1915년 2월 27일 2면.

12) Roehrer H. and Olechnowitz A. F.(1980), *Maul-und Klauenseuche*, Jena.VEB Gustav Fischer Verlag, pp.12-14.

13) Woods A.(2004), *A manufactured Plague Foot and Mouth Disease*, Oxford: Earthscan. pp.3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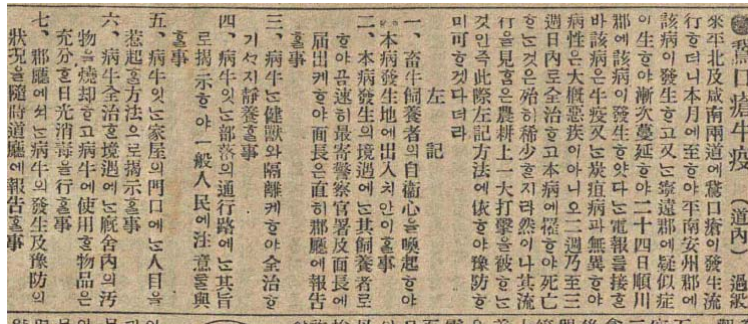
“최근영국에서는 아구창이라는 병이 크게유행하여 점점창궐하는데 이병에 걸린환자가 벌써 일천사백명에달하였으므로 이병원을 근절하기 위하여 소, 도야지, 양 등의 가축을 도살한층수가 팔만팔천마리라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출한 금액이 일천만원에 초과한다더라. (론돈일보), (英國에 鵝口瘡이 猖獗) 조선일보 1923년 12월 23일 3면)

우리나라의 근대 수의학 및 위생학은 일제강점기의 시작과 더불어 일본식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의 위생정책은 대부분 독일 유학파였던 일본 위생 전문가들이 수립한 것이다. 이들로 인해 메이지 유신과 더불어 일본은 독일의 위생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위생은 근대화의 상징이었을 뿐 아니라 국가의 부를 증강하는데 있어 가장 큰 개혁 과제이기도 했다. 특히, 당시 독일에는 세균설의 대가인 코흐(Robert Koch)가 있었고 일본 전문가들은 그의 학풍을 이어 전염병의 원인체를 제거에 치중하는 근대 개념의 방역 제도를 수용했다.<sup>14)</sup> 가축의 질병 역시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졌다. 따라서 전통적인 전염병 구제 방법과는 다르게 이동의 제한, 검역, 혈액검사, 예방접종 등 강제나 제한 조치들이 행해져야 했다. 일본은 농업을 국본으로 하며 축산업을 중요 시 했기 때문에 가축의 위생은 국민의 건강 및 축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가치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염병예방에 대한 강력한 법령과 국가행정조치가 완비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일본은 1886년 제정된 가축류 전염병 예방수칙에 우역, 탄저, 비저 및 피저, 전염성 흉막폐렴에 이어 전염성 아구창(AphthisContagiosa, Foot and Mouth Disease)을 포함시켰다. 이 예방규칙은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고의 의무와 감염축 도살, 이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매주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및 폐사, 회복 등을 지역별로 조사하여 농장무대신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가 세워졌다.<sup>15)</sup> 우역의 경우 전염성이 빠르고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살처분과 국가 보상책을 적용했으나 구제역의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6)</sup>

14) 이종찬(2003), 『메이지 일본에서 근대적 위생의 형성과정, 1868-1905』, 『의사학』 12(1), pp.34-53.

15) 국립수의과학검역원(2008), 『일본가축전염병예방사-한국·일본·중국의 가축질병방역서 수의과학국역총서』 5,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pp.4-39.

16) 山内一也(2010), 『どうする・どうなる口蹄疫』, 東京: 岩波書店, pp.65-69.



<그림 4> ‘鵝口瘡牛疫’(매일신보 1915년 3월 26일 4면)

이런 제도는 일본이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의 식민지화를 준비하는 시기부터 조선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게다가 19세기 말 일본을 강타한 우역 등 가축전염병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한국을 거쳐 유입되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조선 내에서 방역과 예방에 주력하는 것이 일본 내에서 혈청제조사업을 확장하는 것 보다도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sup>17)</sup> 1906년(광무 10년) 내부분과규정에는 경무국위생과에서 관장하는 업무 중 ‘수역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일본이통감부를 설치해 경찰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이후 조선총독부에서는 위생과 관련한 경찰의 업무가 더욱 확대되었다. 1908년 경찰부장회의에서는 가축방역에 대한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농경, 축산 개량이나 운수 및 교통에 피해를 크게 입히는 수역을 막는 것은 국가적인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그 전염속도가 빨라서 많은 소들에 급습하므로 폐사율을 낮지만 사역을 방해한다고 평가했다.<sup>18)</sup> 1910년대 경시총감부위생과에는 방역제와 보건제 모두에 수의축탁직이 포함되어 있다.<sup>19)</sup> 구제역 방역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내려진 지침이 신문문을 통해 홍보되었다<그림 4>.

위생에 대한 과학적인 지지와 경찰력(위생경찰)을 동원한 제도적 정비는 식민지 통치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도구가 된다. 그러나 이것이 대중과 농민들에게 무리 없이 수용되었는가는 의문으로 남는다. 농민들이 대부분 일본인인 방역담당자 수의경찰에 대해

17) 국립수의과학검역원(2008), 같은 책, pp.280-281.

18) 이시영(2008), 같은 책, pp.360-363.

19) 1914년 방역제에 수의축탁 3인과 보건제에 수의축탁 3인, 1916년과 1917년 방역제에 1인, 1918년 방역제와보건제를 아울러 수의축탁 2인이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경근식(2011), 『식민지 위생 경찰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유산-식민지 통치성의 시각에서』, 『사회와 역사』 90, pp.221-270.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에 대한 모순되는 두 가지 기록이 있다. 1920년 평안북도 축탁수의였던 가와구찌(江口胤弘)가 독립단에게 피살되었다. 그는 5년간 같은 지역에서 가축방역을 담당했는데 이시영은 ‘한국수의학사’에서 이에 대해 일본인 수의사의 방역에 대해 주민들의 원망이 컸을 것이며 이것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sup>20)</sup> 반면 일본가축전염병예방사에서는 전혀 상반된 일화를 전한다.

“소를 잃는다는 것은 마치 자식을 잃는 것보다 심각하여 우역의 예방주사 등에 종사하는 수의사에 대한 존경은 매우 두텁고 과거 만세운동 당시에도 수의사에게만은 박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호해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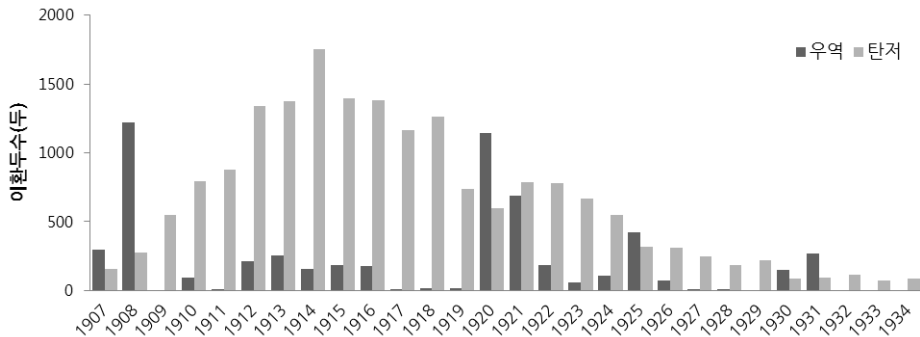
1900년 초 당시 농업 인구는 전체 국민의 약 80%, 농가 호수는 85%에 달했다. 농촌의 문제는 국가 전체의 문제이다. 을사조약을 체결한 1905년 일제는 한반도 농업 조사를 통해 ‘한국농업요항(韓國農業要項)’을 발간한바 있다. 일제에 의해 정리된 당시의 자료들은 궁극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안전한 축산물 수출입에 중점을 두었다.<sup>22)</sup> 이 자료에서 한국의 가축 중 널리 사육되는 것은 소, 말, 돼지, 닭이며 우피(牛皮)와 생우(生牛)의 수출 물량은 각각 804,886원, 164,124원이었다. 또한 축산에서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가축전염병 우역의 근절, 종축 품종개량, 사료 개량, 축사 개량을 들고 있다. 따라서 폐사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은 일제의 축산정책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만한 질병이었다. 1915년 제정된 조선수역예방령에서도 구제역을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법령 제정 후 우역과탄저는 점차 감소 현황을 보였고(그림 5) 이는 법령의 자명한 효과라는 홍보는 충분히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sup>23)</sup> 따라서 근대 수의학 전문가들이 농촌 지역 곳곳에 파견되었고 이런 과정이 농민들에게 있어 근대적 방역 방식이 불만을 초래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시적인 방역 효과가인상적이었다는 점에서 두 가지 상반된 일화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구제역이 질병의 자연사적 성격으로 인해 더 이상 크게 발생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근대적 방역이 성과를 이루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1920~1930년까지 약 10년간 대규모의 구제역 유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과 국경교역이 활발했던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에서는 꾸준히 발생 되었다.

20) 이시영(2008), 같은 책, p.367

21) 국립수의과학검역원(2008), 같은 책, p.262.

22) 김성호(1983), 『『韓國農業要項』 解説』, 『한국농촌경제연구논집』 6(3), pp.89-106

23) 吉田雄次郎(1927), 『朝鮮畜産の 概況』, 『朝鮮 120號』, 朝鮮總督府, pp.65-74.



<그림 5> 축우에서 우역과탄저 발생 연표(1907-1934)<sup>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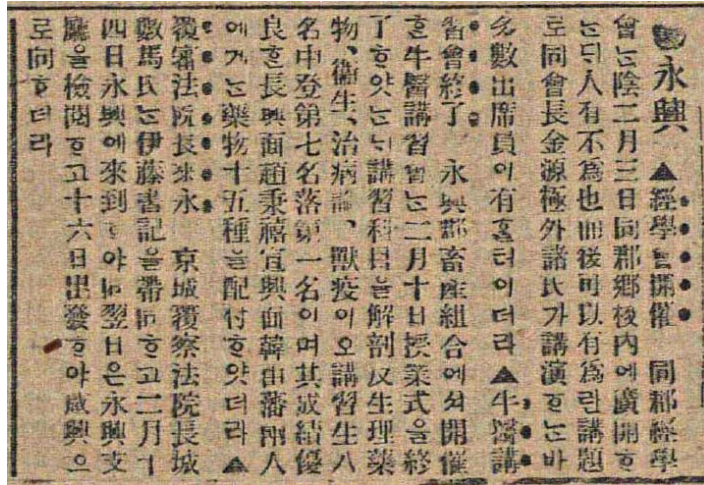
1908년 수원농림학교에 수의숙성과가 설치되어 20명의 조선인 수의를 배출하기는 했으나 이는 1년에 그쳤으며 일본인 수의들이 축탁수의 등으로 활동했으나 방역 및 수의 인력은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에서는 당시 각 지역에서 전통수의술을 행하고 있던 우의(牛醫)를 활용하고자 했다.<sup>25)</sup>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우의강습회가 1915년부터 전국에서 열렸는데 이는 관보 뿐 아니라 다른 신문들에도 홍보되었다. 매일신보에 게재된 1917년 영흥의 우의강습회는 영흥군축산조합에서 개최했으며 해부, 생리, 약물, 위생, 치료, 수역 과목을 강의하였다. 강습생 8명 중 1명의 낙제생을 제외한 7명이 수료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성적 우량자 2인에게는 출신 부락에 약물 15종을 나누어주었다는 점이다. 우의강습회의 기간은 대개 5-6일 정도 었으며 각지역의 축산조합에서 운영했다. 강습 후 기구와 약품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일반 축우사양자들도 강습회를 환영했다고 한다.<sup>26)</sup> 또한 이미 배치된 지역의 우의들이 부족한 의술을 보강하기 위해 도의 축산기수(畜産技手)를 강사로 하여 군청에서 강습회를 열기도 하였다.<sup>27)</sup>

24) 朝鮮農會(1944), 같은 책 第19表.

25) 이시영(2010), 같은 책, p.288-293. 우의강습회가 1917년 이후 보고가 없다고 지적되고 있으나 신문기사를 참조하면 1930년대까지 꾸준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26) ‘進陽牛醫講習’, 『매일신보』 1926년 2월 13일 3면.

27) ‘牛醫講習會’, 『동아일보』 1930월 2월 24일 3면.



<그림 6> '永興 牛醫講習會 終了'(매일신보 1917년 2월 18일 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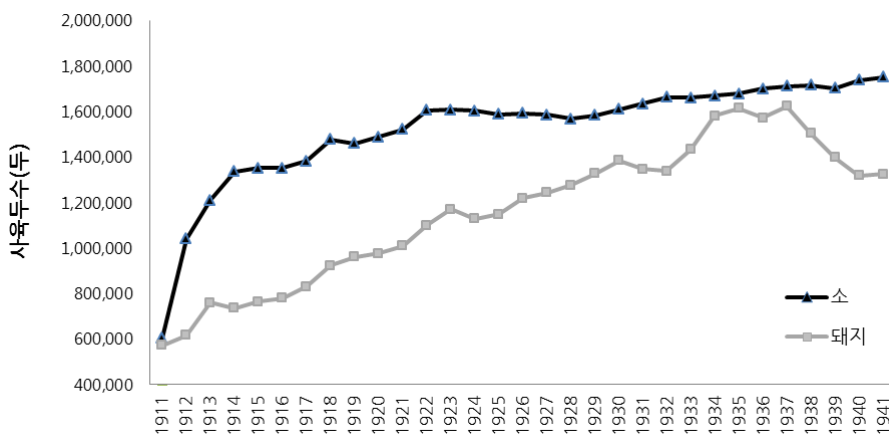
## IV. 1931-1933년 구제역 대유행

### 1. 1930년대 축산 환경의 변화

1918년 '조선중요물산동업조합령'에 따라 지역마다 조직된 축산동업조합의 주요 임무는 축우생산 증대였다. 이를 위해 종모우 설치, 우역 예방 및 치료, 우목장 경영, 가축 매매 중개, 축우 공제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동업조합의 수장은 도사(島司)였으며 부회장은 군, 도의 서무주임이나 축산기수가 맡아 식민지 당국의 축산 정책을 이행했다. 1920년대 이미 전국 축산동업조합은 155개, 축산조합은 51개에 이르렀다.<sup>28)</sup> 1911-1941년까지 축우와 돼지 사양 규모<그림 7>를 살펴보면 구제역은 대유행한 해인 1919년과 1933년에도 사육두수 증가 추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으로 이출되는 소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933년에는 1919년과 비교하여 6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공식적으로 조선에서 도축되는 소의 약 24%에 해당되는 수량으로 결코 적지

28) 강만익(2008), 『1930년대 제주도 공동목장 설치 과정 연구』, 『탐라문화』 32호, pp.75-136.

않은 규모였다.<sup>29)</sup> 이와 더불어 1930년대 초 시작된 농촌진흥운동은 농촌 조직 깊숙이 식민지체제를 도입했으며 개개농가의 신민으로서의 정신과 경제 양측면을 갱생을 목적으로 했다. 농가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 되었고 소와 돼지 등 사육장에서 나온 퇴적물을 이용한 퇴비제조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sup>30)</sup> 이런 사업들이 가축사육 환경을 개선시켜 가축전염병 방역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7> 1911-1941년까지 축우와 돼지 사육 규모<sup>31)</sup>

## 2. 1931년과 1933년의 구제역 발생과 방역

1931년과 1933년의 구제역은 평안북도에서 3월경 시작되어 같은 해 여름에 종식되는 전형적인 구제역 유행 양상을 따랐다. 규모 역시 1919년 유행에는 못미쳤으나 10여년 만에 최대 규모였다. 따라서 구제역의 발생지역이 평안남북도와 황해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탄저나우역 발생이 잦아든 이 시기에 가장 주목을 받는 질병으로 떠올랐다.

29) 朝鮮獸醫畜産學會(1938), 『朝鮮獸醫畜産學會報 統計表』.

30) 김영희(2002), 「농촌진흥운동을 통한 일제의 농촌통제와 농민의 반응」,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0, pp.297-342.

31) 韓國農會(1944), 같은 책 第15表 참조.

<표 4> 1933년 구제역 발생 상황<sup>32)</sup>

구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합계
유행기간	첫발생일	3월 22일	3월 28일	5월 17일	
	최종발생일	5월 8일	5월 22일	5월 26일	
	최종회복일	6월 7일	6월 16일	6월 13일	
발생 두수	소	1,861	493	17	2,371
	돼지	12	-	-	12

구제역은 수역예방령(1915)에서는 살처분 대상 질병이 아니지만 1930년 7월 공포된 조선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살처분 가능한 질병으로 변경된다. 이는 1927년 일본가축전염병예방령에서 우폐역과 함께 살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표와 같이 구제역의 폐사율은 4.2%인 반면 회복율은 95.7%로 높았다. 따라서 살처분 조치가 취해진 것은 1934년의 3두 정도로 극히 드물었으며 가축시장 집합 및 운송 금지, 이동금지, 매입금지, 검역 강화가 적극적인 방역책이었다. 방역기간은 약 한달정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농번기인 경우 이동금지를 해금시켜주기도 하는 등 경우에 따라 유연성 있는 제도의 운영이 가능했다.<sup>33)</sup>

<표 5> 구제역 발생 및 폐사, 회복 두수(1926-1934년 합계<sup>34)</sup>)

구분	두수	비고
발생	3,451	
폐사	145	폐사율 4.2%
살처분	3	1934년
회복	3,303	회복율 95.7%

방역을 위해 동원된 인력은 경찰인력 뿐 아니라 이른바 민간인‘자경단’도 있어서 이후 이들을 달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기도 했다. 곡산서장(木原)이부역대를 당국에 청구하여 1500원을 받아 부락의 갱생기금으로 배급한 내용이 기사화되었다.<sup>35)</sup> 각 부락당 30-100원씩을 배급할 경우 당시 소의 경우 1-2마리 정도 구입 가격이 되었을 것으로 보

32) 국립수의과학검역원(2008), 『일본가축전염병예방사-한국·일본·중국의 가축질병방역사. 수의과학국역총서』 7,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p.201 제2표.

33) 朝鮮總督府(1933), 『官報 1937』; ‘平北牛口蹄疫一七六九頭’, 『매일신보』 1933년 4월 22일 2면.

34) 朝鮮總督府警務局(1934), 같은 책, pp.4-5.

35) ‘防疫代모아洞有金造成’, 『동아일보』 1933년 7월 31일 5면.

인다. 이는 농촌진흥운동의 맥락과도 일치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1933년의 구제역이 관심을 끌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출우 검역 때문이었다. 이미 1908년 이후로 일본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으로의 이출우는 경우에는 그 대응이 훨씬 엄격했다. 1933년 4월 11일 시모노세키항 검역소에 이입된 조선 우 294두 중 255두가 구제역에 검역된 것으로 판명되자 일본은 대대적인 검역과 조사에 들어간다. 같은 월 20일자 동아일보는 이 소들이 진남포로부터 온 것으로 이후 부산, 인천에서 선적한 소들에 대해서도 재계류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소는 일본으로 많이 이출되어 이출항인진남포, 인천, 부산 등지의 검역소에 선 상당한 기간을 계류 검역한 후에 이출하는데 진남포로부터 검역이출한 294두가 門司에 도착 그곳 검역소에 계류하야 둔 동안에 255두나 그 병에 걸린 것이 판명되어 대소동을 이르키었는데 그 소와 한데 계류하였든 부산서 보낸 440두, 인천에서 보낸 120두도 전염될 염려가 있어 재계류를 시키고 검역중이다. 이 때문에 조선우이출에큰타격이 미치어 큰 공황을 느낀다고 한다”(牛疫猖獗로移出에 打擊 동아일보 1933년 4월 19일 2면)

구제역은 우역과는 달리 병우를 격리 수용하여 치료 후 내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시모노세키항 검역소에서는 소독과 치료를 병행하며 이중 폐사된 3두와 도살 처리된 1두를 제외한 후 8월 2일까지 총 4차에 걸쳐 회복된 소를 방출했다. 전 과정은 아오야마(青山操) 세관 수의관 세밀한 보고서로 기록되어 있다.<sup>36)</sup> 이 과정을 통해 일본 검역당국은 소 구제역의 경과와 치료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조선에서 발생하는 구제역의 예방상황을 알아두는 것이 유익하다는 판단 하에 1933년 조선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 세밀한 조사에 들어갔으며 해외 각국의 구제역 발생에 대한 정보 수집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신문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서 전문가가 구제역을 연구하기 위해 특별히 평남지역을 방문했음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구제역의 중요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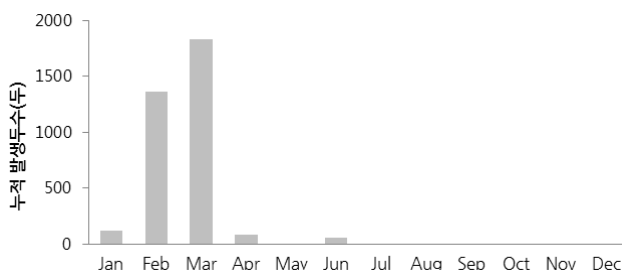
“구제역이 창궐하는 평남에 일본으로부터 이것을 연구코저 동경 전염병 연구소의 수의학박사 成井尙義씨가 왔다고 한다. 구제역은 일본에는 없는 병으로서

36) 당시 보고서에서는 1931년에 비해 1933년 구제역이 전파력이 더 강하며 현저한 구제역 전신 증상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2008), 『수의과학검역총서』 7, pp.169-281.



이를 실지로 연구코저 함인데 成井박사는 3일 우역이 창궐하고 있는 중화로 갔다고 한다. 그는 거기서 병균을 취하여 다른 동물에 이식하여 가지고 일본을 돌아가 연구하리라고 한다”(『口蹄疫研究獸醫博士來壤』동아일보 5월 6일 2면)

1933년 구제역은 평안북도에서 유입되어 축우의 이동, 가축시장 매매로 남하하였다는 것이 구제역 방역상황 개요에 따른 이른바 역학조사 결과이다. 평안도와 함경도는 상시구제역 발생이 잦은 지역이었다. 이는 국경인접과 유동 가축이 많을 것과 더불어 이 지역의 축력을 이용한 발농사의 농업 형태와 소를 중심으로 한 노동 조직 형태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함경도에는 예로부터 소 두마리로 밭을 가는 쌍명애가 대기 풍습이 있었다. 이를 위해 소를 가진 집과 없는 집 몇 집이 ‘소거리’를 조직하여 밭을 갈았다. 이런 공동작업을 위해 밭을 가는 기간에 소들의 잦은 접촉이 구제역 전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sup>37)</sup> 구제역은 주로 겨울철인 1월부터 봄까지 만연했고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농민들에게는 근심거리가 되었다. 1933년의 경우 구제역 유행은 소의 사역이 바쁜 농경기인지라 축산업에 손해를 입혔고 방역시설 및 임시 인력을 포함하면 임시 방역비 지출이 98,153원에 이르렀다고 보고되었다.<sup>38)</sup>



<그림 8> 월별 구제역 발생 빈도(1926-1934년 월별 발생 합계<sup>39)</sup>)

1933년 당시 전국적으로 소사양 농가는 1,299,629호(총 농가호수의 43%), 돼지사양농가는 976,933호(총 농가수의 32%)에 달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함경, 평안, 강원도의

37) 주강현(1996), 『조선후기 우이경 농민생활풍습-1우경과 2우경을 중심으로』,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지』 3(1), pp.143-154.

38) 국립수의과학검역원(2008), 『수의과학국역총서』 7, p.200.

39) 朝鮮總督府警務局(1934), 『朝鮮家畜衛生統計』, pp.14-15.

농가 당 축우수가 가장 많았다.<sup>40)</sup> 1939년경에는 이 지역의 경찰수의는 총 75명으로 전국적으로 평안북도에 가장 많이 배치되었으며 수의사자격증 소지자와 가축의생 수는 총 761명에 이르렀다.<sup>41)</sup> 이렇게 전문가들이 집중되었지만 수의경찰의 업무나 농민들의 방역이 구제역에 대하여 얼마나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했는지는 의문이다. 1933년 동아일보에서는기종저 예방주사를 맞을 경우 구제역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구제역은 당시 백신을 제작하거나 접종하지 않았다. 물론 기종저 백신으로 예방되리라는 것도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소를 모아서 예방주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이동제한 조치와도 모순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구제역 발생 막바지 이른 이 시기의 예방은 경찰행정상의 구실에 불과하거나 무지의 결과로 보인다.

“근일 각지에서 우역이 발생됨에 따라 보은 경찰서에서는 이것을 우려하여 지난 26일부터 5월 7일까지 국내 각면 50개 리의 소를 모아가지고 기종저 예방주사를 실행한다는데 이로말미암아 구제역이 미연에 예방되리라고 한다”(報恩牛疫防止注射’동아일보, 1933년 5월 2일 3면)

### 3. 1934년 이후의 구제역 발생과 방역

공식적인 통계에는 1934년 3두 발생 이후 조선에서 구제역 발생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신문은 지역 소식을 통해 이후에도 구제역이 발생하였음을 전한다. 1942년의 경우는 이환축이 300 두 이상으로 유행의 규모가 작지 않았으며 방역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 광복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구제역이 실제로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표 6> 1934년 이후 구제역 발생에 대한 기사 사례

연도	내용	출처
1936년	평북 농우에 의사구제역 발생 (7두)	동아일보 1936년 3월 8일 7면
	우구제역 발생(평북 6두 확진)	동아일보 1936년 3월 17일 5면
	평북 구제역 발생	조선중앙일보 1936년 3월 13일 3면
1942년	구제역 걸린 소 310여두(함북 온성 외)	매일신보 1942년 4월 9일 3면

40) 朝鮮獸醫畜産學會(1938), 같은 책.

41) 朝鮮總督府警務局(1939), 『朝鮮家畜衛生統計』, p.111.



<그림 9> 1942년 구제역 발생에 대한  
기사(매일신보 1942년 4월 9일 3면)

## V. 결 론

본 연구는 신문자료와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례를 특히 1919년과 1933년 유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질병의 양상과 방역 과정을 축산 현황과 농촌 환경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사회정치적으로도 혼란기였던 1919년은 최대 규모의 구제역이 발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에 있어 1933년 발생 시보다 상대적으로 조직적이지 못했다. 이는 방역 조직과 인력, 일본의 검역 상황, 우역이나탄저 등 치사율이 높은 가축전염병의 동시 발생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20년 대까지 가축 방역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우역이었다. 대표적 식민지 가축위생연구기관인 우역혈청제조소에서도 구제역에 대한 연구는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역이 종식되는 1930년대에는 구제역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었다. 특히, 1933년의 구제역은 일본 이출우 검역과 연계되어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졌다.

&lt;표 7&gt; 1919년 및 1933년 구제역 유행 상황 비교 요약

구분	1919년	1933년
발생규모(두)	36,397	2,383
발생지역	전국적(경기, 충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	황해도, 평안남/북도
축산현황(두)	1,461,660	1,663,136 (14% ▲)
조선 내 도축두수(두)	242,515	287,946 (18.8% ▲)
이출우(두)	42,676	68,520 (60.5% ▲)
이출우 검역	-	구제역 이환우 244마리 4개월간 검역
관련 법령	1915년 수역예방령(유행성아구창)	1930년 가축전염병예방령(구제역)
원인	간도로부터 유입되어 들어옴. 물자운반용 우차들이회령에 집결했다가 전국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	만주에서 사람과 물자 이송우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 벽동에서 창성으로 다시 자성으로 전파되었으며 벽동에서 구성으로 전파되었다가 삭주로재전파됨
기타 상황	우역발생 : 1907-1928년까지 (1908년 및 1920년 대규모 발생) 1920년대 중반까지 탄저 대규모 발생	우역발생 : 1930, 1931년 탄저발생 1920년대 중반 이래 급감
	1920년대 축우 개량 및 증우, 축우생산전문가 읍면 배치, 축산조합 조직	1932년 농촌진흥운동 전개

일제강점기 동안 구제역은 살처분 대상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격리 후 치료 정책을 유지했다. 물론 이는 축산의 규모가 현재와 같이 집약적이 않았고 소가 축력농경의 중요한 요소였던 당시의 축산의 상황에 적절한 방역 대책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전문가는 물론 농민들도 구제역의 경과를 발생부터 회복까지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들이 있었다. 그로 인해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큰 혼란이나 경제적 손실이 없이 방역에 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다시 구제역은 일제강점기가 끝날 때까지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았고 새로운 시도는 수행되지 않았다. 이 시기가 한국 근대 수의학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였지만 한국인 전문가들에게는 구제역을 본격적으로 경험하거나 연구할 동기가 기회가 부족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구제역 바이러스와 구제역 백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1930년대 후반부터 60년대까지 구제역은 관심 밖의

질병이었고 법률상 명시된 명목상의 법정전염병이었다.

본 고에서 다루는 자료는 일부의 신문자료와 통계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어 향후 축산 관계 서적 및 기타 자료를 통한 보완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돼지에서 구제역과 사람에서의 구제역에 대한 부분은 향후 반드시 보충해야 할 부분이다. 일제강점기 시기 구제역에 대한 조사는 모두 소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1933년 일부 돼지에서의 구제역이 보고 되고 있을 뿐 돼지에 대한 자료가 극히 부족하다. 현대에는 구제역의 인체 감염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나 당시에는 많은 신문기사가 구제역이 사람, 특히 어린 아이에게 감염됨을 조심하라는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비교하여 농업 종사 인구가 많았고 직접적으로 가축과 접촉이 잦았던 당시 농촌 사회에서 구제역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이해나 행위 차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만익(2008), 「1930년대 제주도 공동목장 설치 과정 연구」, 『탐라문화』 32호, pp.75-136.
- 국립수의과학검역원(2008), 『일본가축전염병예방사-한국, 일본, 중국의 가축질병방역서. 수의과학국역총서』 5-7,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김성호(1983), 『『韓國農業要項』解説』, 『한국농촌경제연구원논집』 6(3), pp.89-106.
- 김영희(2002), 「농촌진흥운동을 통한 일제의 농촌통제와 농민의 반응」,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0, pp.297-342.
- 신동원(2004), 『한국마의학사』, 과천: 한국마사회.
- 양기호(2003), 「1940년대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재검토-[매일신보] 기사분석을 중심으로」, 『한림일본학』 8, pp.105-142.
- 이시영(2008), 『한국수의학사』,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이종찬(2003), 「메이지 일본에서 근대적 위생의 형성과정, 1868-1905」, 『의사학』 12(1), pp.34-53.
- 정근식(2011), 「식민지 위생경찰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유산-식민지 통치성의 시각에서」, 『사회와 역사』 90, pp.221-270.
- 주강현(1996), 「조선후기 우이경 농민생활풍습-1우경과 2우경을 중심으로」,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지』 3(1), pp.143-154.
- 천명선(2009), 「수의역사:전염병의원인체 발견과 근대 역학의 발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00년사』,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山内一也(2010), 『どうする・どうなる口蹄疫』, 東京: 岩波書店.
- 時重初雄(1905), 『韓國牛疫其他獸疫ニ關スル事項調査復命書』.
- 原島善之助(1908), 「韓國の畜産と獸疫」, 『韓國中央農會報』, 2(1), pp.7-12.
- 朝鮮獸醫畜産學會(1938), 『朝鮮獸醫畜産學會報統計表』.
- 朝鮮總督府警務局(1934), 『朝鮮家畜衛生統計』.
- \_\_\_\_\_ (1939), 『朝鮮家畜衛生統計』.
- 吉田雄次郎(1927), 「朝鮮畜産の概況」, 『朝鮮』 120號, 朝鮮總督府, pp.65-74.
- 韓國農會(1944), 朝鮮農業發達史發達篇.
- Roehrer H. and Olechnowitz A. F.(1980), *Maul-und Klauenseuche*, Jena. VEB Gustav Fischer Verlag.
- Woods A.(2004), *A manufactured Plague Foot and Mouth Disease*, Oxford: Earthscan.

# Foot and Mouth Disease as a Rural Issue in Korean Medi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910–1945)

Chun Myung-Sun

## Abstract

Foot and mouth disease is not a new epizootic in Korea. However, the whole society panicked about the recent FMD outbreak in 2010/2011. Lack of societal experience and memories of the disease leads to underestimate the social and cultural impact of the disease. To prevent another chaos of animal pandemic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what can be learned from the history. Because over 80% of populations were engaged in agriculture industry, FMD in the early 20th should be investigated as a complex rural issue, not simply as an eradication process of an infectious disease. Sanitary modernity and colonial sanitary policy can also give a clue to analyze the FMD outbreaks in that turbulent era. The colonial Japanese ruling body in Korea strictly controlled livestock diseases in the context of efforts to increase livestock productivity and build a shield against epizootics for Japan. According to the animal disease statistics the major FMD outbreaks occurred in 1919 and in 1933. Although the damage of the first outbreak in 1919 was worse, the second outbreak in 1933 received more attention. 117 out of 163 FMD articles found in three biggest newspapers were concentrated in 1933. It was well informed that FMD was highly contagious but not lethal and most important measure against the disease was restriction of livestock movement. Although the regulation permitted the culling strategy against FMD, the infected animals were not slaughtered, nor vaccinated. Prevention strategy against animal diseases and response of rural community were also different between the two outbreaks. It was caused by the changes in rural economic situation, livestock policy, animal disease prevention laws, cattle exports and quarantine to Japan, and supply of veterinary professionals.

**Key words:** Foot and Mouth Disease, Rural Issue, Japanese Colonial Period, FMD Prevention, Quarantine